

욥에게 희망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욥 13:15)

이 페이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한 학기 욥기 강의를 듣고,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욥 13:15을 새롭게 번역하고, 그 번역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하는 페이지이다.

문제제기

욥기 13:15은 우리말 성경에서도 서로 다른 번역을 하고 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나(욥)를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에(원인), 내가 희망이없다(결론). 그러나(역접) 그 분 앞에서 내 행위만은 아뢰리라."고 번역을 하였고, 표준새번역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조건),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결과). 그러나(역접)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고 번역하였다. 그리고, 쉬운성경에서는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조건), 나는 그분을 믿고(결과), (순접)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라고 번역한다. 개역개정판은 13:15a를 탄식조의 인과구문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표준새번역과 쉬운성경은 이 구절을 조건문으로 이해하였다. 표준새번역과 쉬운성경이 이 구절을 조건문으로 이해하였다. 이 두 번역 모두가 조건문으로 이해하고, 그 어조가 하나님에게 따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해서, 13:15의 전체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표준새번역은 15a와 15b를 역접관계로 이해하였지만, 쉬운성경은 순접관계로 연결하였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소발에 대한 대답이자, 친구들을 비판하는 욥의 반론(12:1-13:19)의 틀 속에서 13:15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사본사이의 해석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들 사이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성서 사본간에서도 욥 13:15를 읽는 몇가지 다른 독법이 있다.

(욥 13:15): הֵן יִקְטְלֵנִי לֹא אֶיחַל אֶדְדַּרְכֵי אֶל־פְּנֵי אֹכְיֹתַי מ

접속사 הֵן은 ① "보라" 또는 조건절을 만드는 ② "만약에", "비록 ~라 할지라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¹ 그러므로 위의 마소라 사본²을 이해하면서 ①의 "보라", 내지는 ②의 '만약에'의 의미를 대입하여 문장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라 할지라도"라는 의미를 채택할 경우 "비록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논리적이지 않는 문장이된다. 그러므로, 마소라 사본은 "보라,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또는, "만약에 그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다른 마소라 사본들의 이본들에서는 לא를 לו로 읽고있다.

(욥 13:15): הֵן יִקְטְלֵנִי לוֹ אֶיחַל אֶדְדַּרְכֵי אֶל־פְּנֵי אֹכְיֹתַי Mss

1.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Subsidia Biblica 14/2;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6), § 167l.

2. 이하 '마소라 사본'이라고 표기하는 본문들은 BHS의 레닌그라드 사본을 지칭한다.

만약 마소라의 קרא(케레)를 따른다면, 해석은 "비록,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해석되어야한다. 이 קרא의 전통은 라틴어 역본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etiam si occiderit me in ipso sperabo verumtamen vias meas in conspectu eius arguam* (욘 13:15)

하지만, 마소라 사본의 이본들의 상당수가 לא를 לו로 고쳐읽는다는 것때문에, 지금 성서를 읽는 독자들도 그 독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본들의 독법 역시 하나의 의견제시일 뿐, 마소라 사본의 כתיב(크티브)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쉬나의 הושה בן הרקנוס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랍비 여호수아 벤-후르카노스 רבי יהושע בן הרקנוס (후르카노스의 아들 랍비 여호수아)는 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한다.³

3. בו ביום דרש רבי יהושע בן הרקנוס, לא עבד איוב את הקדוש ברוך הוא אלא מאהבה, שנאמר (איוב יג) הן יקטלני לו איחל. ועדן הדבר שקול, לו אני מצפה או אני מצפה (סוטה ה, ה)

이 뿐 아니라, 문제제기에서 제시하였던 한글 번역성경 뿐 아니라, 현대의 영어 역본들 사이에서도 해석사의 불일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영문판 성경 KJV는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but I will maintain mine own ways before him."으로 번역하였고 JPS는 "He may well slay me; I may have no hope; Yet I will argue my case before Him."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욥 13:15를 읽을 때에 독자는 반드시 전후의 문맥에 의지하여서 כתיב(크티브)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אקרא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한다.

욥 12:1-3:19

욥 12:1-3:19까지의 욥의 말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비판이 담겨있다. 이 대화에서 욥은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יהוה עשה 이라고 인정한다. (1)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절망에서 나온 탄식이 아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숨은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리고 12:7 이하에서 보듯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던 말들은 너무나 뻔한 말들이고, 이미 욥도 알고 있고,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관념적인 하나님 이해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욥도 그 친구들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3) 그리고는 지식과 관념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의 하나님 이해에 맞서서,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욥 13:12-13에서는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참견하지 말고, 그대로 나를 내버려두라고 말한다. 그리고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대로 말하겠노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욥 13:15는 욥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선언으로 보아야한다.

욥의 선언 (1) — וְקָטַלְנִי יְהוָה

15a α 는 그 문장이 매우 간결하다. 하나의 동사와 동사 뒤의 목적격 어미가 붙은 이 형태는 그 번역이 다른 문장들에 비해서 쉽다. 부사 וְהוּא는 접속부사로 '그러므로', '보라'의 의미로 사용되고, 접속부사 וְכֵן는 대표적인 역접 접속부사로 '그러나'로 번역이 된다. 그러나 וְהוּא와 וְכֵן 모두가 문장에서는 특별한 번역상의 의미 단어가 아니라, 강조를 주기 위한 장치로도 사용된다.⁴ 그러므로 친구들을 향한 욥의 선언인 욥 13:15a에서는 וְהוּא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강조의 역할을 하는 부사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וְכֵן의 3인칭 미완료형을 사용한 וְקָטַלְנִי וְהוּא를 "그가 나를 분명히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욥의 선언(2) — וְאֵלֵּי יְהוָה אֲדַבֵּר

고디스(R. Gordis)는 욥 13:15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Yes, He may slay me; I shall not be quiet, but I will justify my ways to His face. 고디스는 וְאֵלֵּי를 따라서 וְאֵלֵּי로 읽었고, וְאֵלֵּי와 וְכֵן가 짝을 이루어서 영어의 not A but B 구문처럼 번역하였다. "내가 가만있지 않고 당신의 면전에서 나를 대변하겠다"는 욥의 의지이자,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맞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태도이다.⁵

4. Joüon and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 164g..

5. Robert Gordis, *The Book of Job* (Moreshet 2;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78), 130, 144.

하틀리(Hartley)는 고디스와 마찬가지로 כתיב를 따라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변명할 기회조차도 끝나버릴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하틀리의 번역은 기본적인 히브리어 원문의 구분을 15b와 15a를 뒤바꾸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정'까지 상정한 과도한 해석이다.⁶

클린스(Clines)는 אקא를 따라서 לו로 고쳐있는 학자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욱을 죽일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해주실 것이라고 계속 바라는 욱의 신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번역은 곧이어 나오는 15b와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논리적이지 못하다. 15b에서는 "나의 길을 그의 면전에서 변론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해준 후에 또다시 욱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할 이유는 없다.⁷

나는 마소라 본문의 כתיב를 따라서 לא איהל로 보고, 그 해석은 "나는 (삶의)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번역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욱은 이미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이 의인일 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욱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다면, 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לא איהל! 그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6.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8), 223.

7. 데이빗 J.A. 클린스, 욱기 1-20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6), 668-669.

욥의 선언(3) — :אֵלֹהֵי אֲדָמָה

15a의 해석이 명료해졌다면, 15b의 해석은 비교적 간단하다. 나는 15a를 "그가 나를 분명히 죽일지도 모른다. 나는 (삶의)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을 기준으로 15b는 "그러나, 나는 나의 길—내가 살아온 길—을 그 앞에서 변론하리라"라고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절대로 욥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따지듯이 하는 변론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욥이 친구들을 질책하는 말이다.

욥은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의지대로 죽게되는 운명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욥은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의인의 특권은 삶에서 어떠한 고난도 없이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된 욥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길을 변론하는 것"이 의인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욥 13:16과 잘 어울린다.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손 치더라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욥 13:16).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욥 13:15는 성서 번역자가 욥의 고난과 욥이 친구와 하는 대화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변론을 하는가의 입장에 따라서 אֵלֹהֵי אֲדָמָה를 따라 번역할 수도 있고, אֵלֹהֵי אֲדָמָה를 따라서 번역할 수도 있다.

나는 "욥에게 희망이 있는가, 아니면 그에게 희망이란 없는가?"의 문제를 놓고 이 페이지를 시작하였다. 히브리어 본문에 의거한다면, 욥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욥이 말하는 "희망없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자기를 변론하려는 기회조차 빼앗겨버린 절망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유지하려는 희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기준에서의 희망은 욥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욥은 순순히 자기에게 희망이 없을 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욥에게 중요했던 것은 욥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최후까지 의인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가의 문제였다 (욥 13:15-16). 비록 친구들의 기준에서의 희망은 욥에게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희망은 욥에게 분명히 있다.

참고문헌

Gordis, R. *The Book of Job*. Moreshet 2.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78.

Hartley, J. E. *The Book of Job*.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8.

Jouion, P.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Subsidia Biblica 14/2.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6.

클린스, D. J. A. 욥기 1-20.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6.

משנה, סוטה